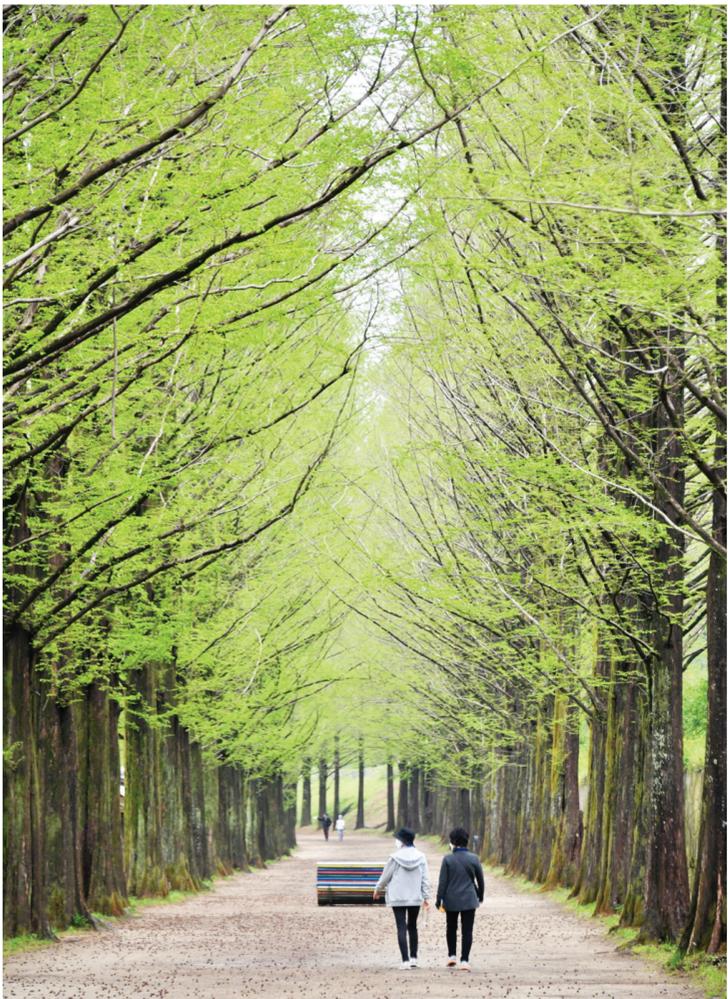


민주당 담양사무소發 확진 잇따라...감염원 ‘오리무중’

비서진·당직자·당원에 의원까지 n차감염 속출
 담양 첫 집단감염 ‘2단계 격상’...군민 전수조사
 “검출 바이러스량으로 미뤄 전파력 매우 강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역구에 둔 전남 담양 연락사무소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비서진과 당직자, 당원이 연쇄 감염된 가운데 인근 대도시인 광주로 빠르게 번지며 ‘n차 감염’도 현실화됐



봄기운 머금은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히는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에 봄이 찾아왔다. 13일 담양을 찾은 상춘객들이 녹음이 가득한 메타세쿼이아길에서 한가롭게 봄을 즐기고 있다.

다. 담양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 군민 대상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초 감염원에 대해서 당직자 중심 연석 모임이 주목받고 있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민주당 담양사무소에서 여직원의 남편(전남 982번, 광주 하남산단 입주업체 근무)이 지난 14일 첫 확진된 이후 나흘 만에 관련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다.

지역 별로는 광주 17명, 전남 14명, 전북 2명, 서울 1명(이개호 의원) 등이다.

담양사무소 홍보실장(전남 988번째 환자)과 수행비서(전남 989번), 당원(전남 990번), 또 다른 당원 부부(전남 991·992번) 등이 줄줄이 감염됐다. 이어 광주에 사는 비서관, 당직자, 당원, 담양 식당 주인 부부·종업원과 그 가족 등이 잇따라 감염됐다.

당초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었던 광주 2258번째 환자로 이 의원의 수행비서와 식당에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 확진 사례 4명도 담양사무소 관련 연쇄 감염인 것으로 재분류됐다.

특히 전남 990번째 환자는 광주에 사는 지인과 그 지인의 모친까지 연쇄 감염을 촉발했

다. 이 중 상당수는 검출 바이러스량으로 미뤄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확진자 중 증상 발현이 가장 빠른 날짜는 첫 확진자가 나오기 나흘 전인 이달 10일(식당 주인)이다. 이튿날 이 의원은 결혼식·장례식 등 지역 일정을 잇따라 소화했다.

빠른 확산세에도 최초 감염원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관련 확진자들의 이달 중 주요 동선은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 참석 및 당원 30여 명 버스 이동 ▲7일 당직자 중심 3차례 연석 모임(담양사무소·관사·식당) ▲5~8일 이 의원 수행비서 지인 만남 ▲11~13일 이 의원 지역구 활동 ▲13일 담양군청 일부 직원·이 의원간 면담 등이다.

현재까지 서울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가 거의 없는 점으로 미뤄 유세 현장이나 버스 내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행비서의 지인도 최초 증상 발현자보다 사흘 늦게 증상이 나타나 첫 감염원으로 보기 어렵다.

방역당국은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까지 장시간 수차례에 걸쳐 열린 당직자·당원 연석 모임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회동 중 사무실 모임에선 참석자 7명 중 3명, 관사 모임은 8

명 중 4명, 특히 식당 모임은 7명 중 5명이 무더기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3곳 중 1곳이라도 이달 7일 이전에 무증상 보건자나 타 지역 감염자가 다녀갔고, 이후 당직자들이 감염됐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중 최소 1곳이 집단 감염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담양군은 지난 1월30일 이후 석 달 만의 신규 확진이 공교롭게도 지역 첫 집단 감염으로 번지자,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방역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또 공무원 800여 명에 이어, 12개 읍·면 전 군민 4만여 명에 대해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까지 1만5000여 명이 검사를 마쳤다. 현재 광주·전남에서 방역 2단계가 내려진 지역은 담양이 유일하다.

더욱이 담양 주민의 출·퇴근이 잦고 동일 생활권으로 묶이는 광주도 감염 확산세가 급격히 옮겨 붙는 모양새다.

민주당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 등은 광주 지역 유흥주점, 식당,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연관이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GGM·도시철도 2호선, 광주 경제에 ‘단비’

광주·전남 출신 인력 참여율 ↑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적극 유도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지역 업체와 장비, 인원이 대거 투입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장 건설을 끝마치고 시험가동에 들어간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그동안 385명의 인력을 채용한 데 이어 현재 기술직 신입사원 137명에 대한 모집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채용을 완료한 385명 중 광주·전남 출신은 90.9%를 차지했으며 모집 중인 기술직 신입사원 역시 지역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공장 건설 과정에 투입된 44개의 장비업

체 중 광주·전남 업체가 98%인 42개에 달했고, 투입 인력도 연인원 13만7209명 중 지역 인력이 79%인 10만9354명을 차지했다.

공장 건설 과정에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에 참여한 업체 54개 중에서도 지역업체가 30개에 달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금액(직접 공사비)의 62.8%가 지역업체에 지급됐다.

이 밖에도 구내식당 식자재의 30% 이상을 지역 식자재로 사용토록 의무화했으며, 구내식당 인력도 70% 이상을 지역민으로 채용토록 했다.

도시철도 2호선도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러넣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2019년 9월 발주된 1단계 본선 1~6공구와 지난해 6월 발주된 1단계 차량기지 건설 등 7건의 공사 4879억 원 중 공동도급 광주업체가 1402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구별 하도급 3319억 원 중 광주업체는 70%인 2318억 원에 이르고 있다.

기전분야에서도 본선 접지, 지장물 이설, 차량기지 등 모두 13건 167억 원 중 광주업체가 76%인 127억 원에 참여하고 있다. 본선 전기 공사 역시 12건 409억 원 중 광주업체 참여율은 61%, 248억 원에 달한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이무 공동도급으로 시공능력 우수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현행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을 49% 이하 범위에서 입찰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70% 이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1단계 토목·건축공사의 경우 차량기지와 6개 공구로 분할발주하면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70%에 이르렀다. 아울러 후속공정인 전기·기계·통신 분야도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하고 공구를 분할한 결과,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76%에 이르고 있다.

최은희기자

곡성군

랜선 곡성여행

제5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PHOTOGRAPHY

2017 제2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입선작 김정현-침실습지의 부드러운 아침물결

공모기간
21. 3. 15. 월 - 6. 30. 수

발표일 2021. 7. 16. (금)

참여자격 전국민 누구나

시상안내 18명 선정 / 총 상금 4,000,000원
작품 수준 미달시 아차상 취소 가능

발표안내 홈페이지 및 군 공식 블로그 게재 (개별 연락)
https://blog.naver.com/gokseong_love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사진 원본파일(3MB 이상)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이메일과 우편접수
이메일 : sangyu100@korea.kr
우편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미래혁신과 스마트홍보팀